

◆ 함께 연구합시다 ◆

34

원장님들께서는 진료중 또는 진료 계획을 세우실 때 확신이 서지않는 문제에 부딪혀 보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편집진에서는 원장님 여러분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임상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받아 관계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함께 연구합시다”란을 마련했습니다. 이 난에는 앞으로 병의원 내의 실제 임상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라도 가장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구해 실을 예정입니다. 많은 질의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기명 또는 무기명 어느쪽도 좋으며 100-28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92-30(신성상가 Apt. 504호),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대행기관 현대의학사 (☎277-8867·266-839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5. 拔齒時 根尖이 破折되었을 경우 再拔去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拔齒時 근단굴곡 또는 근단비대등으로 根尖이 破折된 경우, 완전히 이를 拔去하는 것이 當然하나 많은 완자를 진료하기에 시간에 쫓겨 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여도 큰 탈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놔 두었다가 再拔去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76. 화학적 치태조절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손쉽게 치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75. 拔齒時 根尖이 破折되었을 경우 再拔去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拔齒時 근단골극 또는 근단비대등으로 根尖이 破折된 경우, 완전히 이를 拔去하는 것이 當然하나 많은 완자를 진료하기에 시간에 쫓겨 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여도 큰 탈이 없다고하는데 어느정도 놔 두었다가 再拔去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根尖에 病巢가 있는 치아의 拔去는 그 치아를 제거함으로서 拔치와를 통해서 病巢를 제거하는 것이 目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保存 可能性이 있는 치아 라면 拔齒하지 않고 根尖의 病巢만을 제거하는 치근단 切除術을, 또한 症例에 따라서는 病巢를 없애는 手段으로 拔齒하여 병소를 발치와에서 제거한 다음 다시 치아를 제자리의 발치와에 植立하는 치아재식술을 시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치란 이들 병소를 없애는 한 수단으로 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뜻에서 근침에 병소가 있는 치아를 근침을 남기는 발치란 발치의 참뜻이라 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이런 치아는 완전히 발치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근침에 병소가 없는 치근이라면 남겨두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점차 吸收되거나 때로는 異物化되어 排出되기도 하며, 놔 두어도 自覺症狀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때도 있으나, 症例에 따라서는 감염을 일으켜 치조골염 또는 악골염등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質問과 같이 어느정도 두었다가 再拔去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症例에 따라서도 다르기때문에 回答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나 可能하다면 빠른 時日내에 拔齒를 해야 할 것입니다. 一般的으로 拔齒를 할 때는 X-線사진을 찍어 根尖상태를 잘 관찰하고 慎重히 施術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침이 破折되었을 때도 자세히 발치와를 검사하여 破折된 근

침을 확인한 다음, Root Picker등을 이용하여 잔존치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때로 복근인 경우 치주조중격이 방해가 될 경우에는 Bone Rogeur(파골점자)나 Chisel(끌)등으로 중격을 削除하여 잔류치근침을 확인하고 전술한 파절근 제거용 Elevator(Root Picker)로 치근침을 탈구한다음 제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치와를 통해서 치근침을 확인하기가 곤란할 때는 Flap operation (被瓣術)을 이용하여 치조골을 삭제하고 잔류치근을 노출시켜 除去할 수 있습니다.

<해설 : 서울대치대 구강외과 金圭植교수>

76. 화학적 치태조절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손쉽게 치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치태제거에는 기계적 방법이 가장 좋지만 매일 정확한 치솔질을 하기는 어렵고 또한 완전한 치태제거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치솔질로 인한 치아 및 치은의 손상을 보상하기 위하여 화학약품을 이용한 치태제거법이 연구되어 왔다.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치태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1. 치면에서의 세균집락화를 방해한다(ten-sioactive agents, antiseptics).
2. 치면에 집락화를 이룰 수 있는 세균 수를 감소시킨다(antibiotics, antiseptics).
3. 치태 간질을 분해시킨다(enzymes).
4. 세균대사를 방해하여 병인성을 감소시킨다(antiseptics, dietary substance, fluo-rides).

그러나 치태조절을 위해 안전하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항생제는 전신적인 부작용때문에 단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제제들도 독성등의 국소적 또는 전신적 부작용이나 임상

적으로 뚜렷한 효과가 결여되어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

1. 화학요법제의 분류

1) 장력 작용제(tensioactive agents)

음료수 고농도의 불소가 들어 있는 지역 주민에게서 치태등 침착물이 덜한 경향을 보이는 것에서 불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불소는 단백질 흡착에 대한 수산화 인화석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법랑질 표면의 표면에너지와 치태형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물실험에서는 불소가 세균 증식을 억제시키고 치태형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지만 임상실험에서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소막형성이 어렵지만 반복 도포에 의하여 치태형성에 대한 제한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이러한 불소 화합물에 의한 피막이 세균의 흡착을 방해함으로써 치태물질 및 세균의 운동성을 감소시킨다. 종류로는 NaF, SnF₂ 등이 있으며 음료수에 혼합하거나 치약, gel, 국소도포등으로 이용한다.

2) 항균제

세균의 수를 감소시키는 화합물로서 sodium ricinoleate, chloramine-T, cetylpyridinium chloride, benzalkonium chloride, chlorhexidine gluconate, alexidine iodine, zinc chloride, sanguinarine 등이 있다. 이 중에서 chlorhexidine gluconate가 가장 효과가 좋으며 부작용과 독성이 적고 그람 양성 및 음성균은 물론 효모에 까지도 작용한다. 세균의 균형을 유지시키면서도 현저한 세균 저항성은 일으키지 않아서 가장 널리 쓰이지만 단점으로는 구강점막의 상피탈락, 혀와 치아의 갈색 변화, 치아 착색, 혀의 작열감 및 쓴 맛 등이 있다.

3) 효소

치태내 세균간질을 분해시키는 dextranase,

chymotrypsin, pancreatin, amylase, trypsin, lipase등으로 세균의 집락화를 방해하여 치태형성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들 효소들의 치태, 치석등의 감소효과는 제한된 감소이며 임상적 효능은 아직까지 의문시 된다. 효소는 비교적 천천히 작용하므로 치면에 오래 작용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세균총의 변화로, 특히 효소에 저항하는 치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4) 항생제

항생제중에는 세균을 죽이는 것과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두가지가 있고 투여방법도 경구투여 및 국소도포로 나뉜다. 경구투여시 타액이나 열구액을 통하여 서서히 유출되므로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amoxacillin이나 penicillin은 타액으로 많이 분비되며 tetracycline이나 minocycline등은 치은액을 통하여 많이 분비된다. 항생제에 의하여 세균집락화가 예방되고 치은염의 심도가 감소되지만 약물에 대한 감수성 및 전신적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Candida albicans* 등의 성장증가 및 저항균주 발생이나 전신질환시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화학요법제의 사용법

상기의 화학요법제는 국소도포, chewing gum, gel 이용, 전신적 투여, 열구 세척등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불소 화합물은 국소도포나 gel을 사용하거나 치약에 넣어 사용하며 항생제는 경구투여로 이용하고 효소및 항균제등은 구강함수제로 사용한다. 또한 Keyes방법으로써 화학제에 의하여 열구내 세균을 세척하여 제거하고 치주수과술을 병행하므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응용하는 방법도 있다.

<해설 : 경희치대 치주과학교실 권영혁교수>